

2020
12

병리협보

KAMT Monthly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2 KAMT NEWS

성북구청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용품 1,000개 기증

04 KAMT NEWS

26대 집행부 10대
공약이행사항 점검

07 KAMT NEWS

2020년 회원 주요
고충사항 및 답변

08 EDUCATION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
필수과목 이수 공지

10 NEWS

중소 병·의원,
여전히 근로기준법 위반 많다

제455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 대한민국 전통 유전자분석 전문기업, 코젠바이오텍
- Bright Technology, right decision. 브라이텍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우주, 하성일
기자 최현빈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2020 보건의료기사의 날 행사 개최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행사 최소화해 개최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을 비롯한 8개 단체장, '보건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정책의 미래 발전 방향성 모색'이란 주제로 좌담회 진행해



지난 11월 13일,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회장 전병진, 이하 의기총)는 '2020 보건의료기사의 날' 행사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한안경사협회에서 개최했다. 의기총은 우리 협회를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8개 보건의료기사 단체의 연합회다.

의기총은 지난 2018년부터 '보건의료기사의 날' 행사를 기획해 40만 보건의료기사 회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018년에는 '우리 같이, 우리 가치'를 슬로건으로,

2019년에는 '불어라! 보건의료기사의 바람'을 슬로건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2000여명의 보건의료기사 회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대한안경사협회관에서 각 단체장 및 수상자 50명만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축사와 각 보건의료기사 단체장들의 축사, 포상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직접 참가하진 못했지만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부터 허종식 의원, 남민순 의원, 강선우 의원, 최연숙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영상 축사를 보내줘 행사에 힘을 보탰다.

이어서 각 보건의료기사단체장들의 축사가 있었다. 전병진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보건의료기사는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제외되는 등 보건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임에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이에 동의하며 "더 이상 보건의료기사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8개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힘을 보탰다.

각 단체장들의 축사 이후엔 올해 국민건강 수호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각 단체별로 1명씩 선정됐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유항림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장(대구보훈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유항림 회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이 대거 확산된 대구광역시에서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총괄하며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시상식 이후엔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미래발전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각 단체장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의기총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회원의 일자리 확대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힘을 계획이다.



중앙회소식

서울시 내과의사회와 임금가이드라인 합의

협회는 2018년부터 임상병리사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내과의사회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협회 중소병원발전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11월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내과의사회 회의실에서 서울시내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임상병리사 최저임금에 대해 대등 초임 기준 연봉 2,8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번에 설정한 최저임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 병·의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상병리사 임금 가이드라인은 26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지만, 내과의사회와의 협력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다. 협회는 이번 서울시 내과의사회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회로 넓혀갈 계획이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실질적인 합의는 의료기사 협회 중 우리 협회가 최초다.

김대중 중소병원발전위원장은 "이번에 합의한 2800만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이며 임상병리사의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내과의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국의 중소병의원 회원들이 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용품 1,000개 기증



우리 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북구민을 위해 성북구청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용품 1,000개를 기증했다. 지난 11월 19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용품 기증식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박희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무이사,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를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용품은 성북구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하

는 마음을 담아 협회에서 직접 제작했다. 키트는 마스크를 비롯한 마스크 스트랩, 마스크 보관함, 휴대용 손 소독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부된 용품은 성북구에서 필요한 구민들을 파악해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 집행부는 기증식 후 이승로 구청장과 함께 협회-성북구간 업무협약, 성북구 중앙동 협회관 재건축, 성북구 지역 보건의로 현장에서의 봉사활동 등 양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인호 협회장은 "오늘 기증은 우리 협회가 비영리 단체로서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성북구는 협회가 몸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앞으로도 함께 여러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성북구와 함께 취약계층 감치 지원, 급식 봉사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회원 복지혜택 확대

우리 협회는 11월 23일부터 하나투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여행상품, 호텔, 공연 티켓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물 서비스를 협회 정회원에게 제공한다. 협회는 지난 10월에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건강증진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회원 대상으로 종합검진 할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나투어 복지물에서는 여행 패키지, 항공권, 호텔 및 숙박과 같은 상품들을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 국내·국외여행 패키지 상품의 경우 협회 정회원은 예약 후 하나투어 담당자(02-2127-6660)에게 문의하면 최대 3%의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정회원 혜택은 협회 홈페이지-협회소개-회원가입 안내-정회원 혜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회는 자문노무사를 통한 상담 등 계속해서 정회원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상 수상



우리 협회는 12월 4일, 소방청이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특별상 부문 단체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우리 협회는 정확한 진단검사로 K-방역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상하는 특별상을 받았다.

협회는 그동안 사스, 메르스를 거치며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 노후를 구축하고,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곧바로 임상병리사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특징과 검사 방법에 대해 정보공유 및 교육을 제공했다. 이번 안전대상 수상에는 이러한 부분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감염성 검체를 다루는 임상병리사들이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검사실 진단 지침 등을 배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국내 회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Real time RT-PCR' 검사법에 대한 영상 매뉴얼을 만들어 해외 유관단체 및 학회에 배포한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인호 협회장은 "이번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더 잘 지켜달라는 의미로 알고 지금도 밤낮없이 코로나19 검사에 매진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0.11.01 ~ 11.30

▶ 11월 2일: 협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편집위원회 학술지 재인증 평가 회의가 열렸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의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 평가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 11월 3일: 중앙회 공보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보도국을 찾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키트를 전달했다.

▶ 11월 10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가 화상회의와 병행해 진행됐다. 2020년도 전문임상병리사 이수평점, 2021년도 전문임상병리사 교육 운영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 11월 12일: 제3차 법제위원회 회의가 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재무관리 운영규정 개정 ▲사무국운영 제 규정 운영 세칙(사무국직원 퇴직 절차) 재정 ▲보건복지부 종합검사 조치사항 관련 규정 개정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규정 개정 ▲2021년 법제위원회 예산 편성의 건 등이 논의됐다.

▶ 11월 13일: 임상병리학과 학생실습 동영상제작 TF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대체할 동영상 강의 제작에 대한 기획안이 논의되었다.

▶ 11월 19일: 제456차 상임이사회가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화상회의와 병행해 진행됐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문 ▲2021년 하나카드 협회비 결제일자 변경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학술지 재인증 평가 결과 ▲국무총리비서관 간담회 진행 ▲시도분과학회 회칙 설명회 개최의 건 등이 보고됐다. 부의안건으로는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 후원 기금 지원에 따른 예산 전용 ▲행정지도감사 제출용 잔액증명서 발급 ▲제규정 개정 및 세칙 제정의 건 등의 논의·의결됐다.

▶ 11월 26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 및 화상으로 임상병리학과 학생현장실습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한 회의가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실습, 동영상 강의로 대체한다

올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며 임상병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병원실무실습이 전면 중단 위기를 맞았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담당 TF를 구성해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와 함께 2020년도 온라인 임상실습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강의는 진단검사(6개 분야), 조직병리검사(1개 분야), 생리기능검사(1개 분야)로 나눠 제작한다. 협회는 학생들의 기존 현장실습을 대체하기 위한 콘텐츠인 만큼 각 의료기관의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및 생리기능검사실의 협조를 얻어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상희 중앙회 학술이사는 "내일의 우리 회원들을 위해 실제 병원에서 실습하는 것과 같은 동영상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협회와 의료기관, 학생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이전과 동일한 교육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지도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진행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8일, 2020년도 시도회 및 분과학회 행정지도감사를 시행했다. 우리 협회는 회원 관리 및 조직운영을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 매년 11월~12월 중 시도회 및 분과학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는 중앙회 노경운 행정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16명이 각 시도회 및 분과학회의 조직운영, 사업시행,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 회비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외부회계 중간감사를 받아 협회의 재무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협회는 이와 같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0.11.01 ~ 11.30

▶ 11월 4일: 서울시 중구 내과의사회관 회의실에서 서울시 내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진행. 임상병리사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의

▶ 11월 5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회 임원 간담회에 참석

▶ 11월 6일: 지형선 총회회장과 간담회를 가짐. 이후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생실습 동영상제작 TF팀 회의를 진행

▶ 11월 7일: 협회관 2층 서울시회 강의실에서 진행된 제4차 협회관 가치 제고 TF 회의를 진행

▶ 11월 9일: 서울 혜화동에서 하나투어 관계자와 협회 정회원을 위한 복지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11월 12일: 협회관 회의실에서 시도회 및 분과학회의 온라인 학술대회 송출비용에 대해 집행부 담당 부서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

▶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현안 토의, 이후 대한안경사협회관에서 열린 제3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행사 및 100분 토론회에 참석. 그리고는 협회관 2층 서울 서울시회 강의실에서 열린 회원고충처리위원회 2020년 제2차 회의를 참관

▶ 11월 17일: 대한임상검사장도관리협회 2020년 발전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이후 사무국 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명령 교육 참관

▶ 11월 18일: 박근태 내과의사회장과 면담 진행

▶ 11월 19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키트 기증식에 참석. 이후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회-성북구 간 업무협약, 협회관 재건축, 지역 의료봉사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

▶ 11월 20일: 협회관에서 진행된 시도분과 행정지도감사를 참관

▶ 11월 24일: 임상병리사 업권 및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회의에 참석

▶ 11월 27일: 2022년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 회의를 진행

▶ 11월 30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서울시임상병리사협회 집행부와 함께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짐. 협회에서 성북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논의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밤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실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 CHEMISTRY DxC 8801, DxC 800, AU Series
- IMMUNOASSAY DxI 800
-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 SERUM PROTEIN IMMAGE 800
-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 LAB Automation System
-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 IMMUNOLOGY ELISA Reagent
- MAST ALLERGY
-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6대 집행부 10대 공약이행사항 점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6대 집행부 공약이행사항 점검

지난 2018년 3월 출범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26대 집행부의 임기가 내년 2월 28일이면 종료된다. 병리협보에서는 제26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이행실적과 전반적인 사업평가를 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장인호 협회장은 출마의 변인 '소통과 화합,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를 통해 협회 안의 회원이 아닌,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소통과 화합 ▲일자리 영역 확대와 중소병원의 근무 회원 복지 개선 ▲협회 위상 제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공약으로 ▲민원응대 핫라인 설치 및 회원복지기금 신설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결재 및 행정 간소화 ▲운영비 선지급 등 시도회 및 분과학회 적극 지원 ▲검사 건수 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중소병원 회원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및 상조 지원 ▲협회 당연가입 및 학제 단일화 추진 ▲임상병리학과 평가원 및 연수원 설립 기반 구축 등을 설정했다.

대부분 선거철이 되면 온갖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다시 말하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리협보 12월호에서는 제26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한다.

소통과 화합 부문

1 화합과 협력의 회원 중심 협회 운영

26대 집행부는 고른 인재 등용을 위해 각 시도회 및 분과학회에서 유능한 인재를 추천 받고, 이들을 중앙회 집행부로 임명하여 함께 활동했다. 또한 중소병원의 회원을 일반이사로 배정하여 중소병원의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하던 것을 중앙회장이 2명, 시도회회의에서 1명, 분과학회회의에서 1명, 총회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도록 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인호 협회장을 비롯한 26대 회장단은 주기적으로 시도회회의 및 분과학회회의와의 회의를 통해 대의원 수 조정, 교부금 지급을 조정, 분과학회 사이버 보수교육 강의 제작 지원 등 협회 주요 현안을 함께 해결했다.

2 민원응대 핫라인 설치 및 회원복지 확대

26대 집행부는 주요 공약사항으로 회원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원응대핫라인 설치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범위, 임상병리사 처우 개선, 검사업무 등 회원들의 특수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2018년 52건, 2019년 166건, 2020년 86건의 민원을 접수-해결했다. 정회원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정회원 건강검진 할인 혜택, 하나투어 복지들 연계 할인, 고문번호사 및 자문노무사 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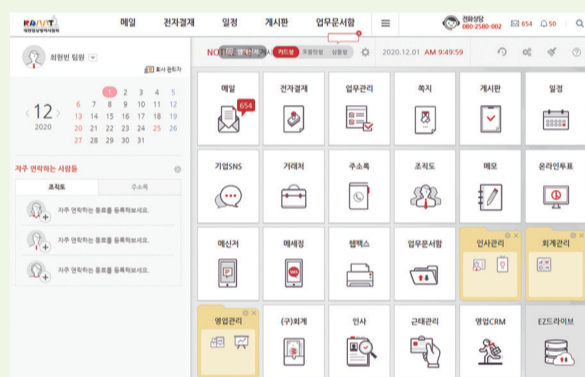
순번	내용	2018	2019	2020	합계
1	업무범위	9건	35건	13건	57건
2	임상병리사 처우 개선	11건	47건	21건	79건
3	보수교육 개선	18건	25건	3건	46건
4	검사업무 관련 질문	4건	25건	14건	43건
5	협회 관련(정회원 혜택, 협회비 등)	7건	30건	6건	43건
6	코로나19 지원 및 대응	-	-	18건	18건
7	종합학술대회 의견	-	-	2건	2건
8	기타	3건	4건	3건	10건

표1: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특수민원 조치 내역

3 대의원 수 조정 및 협회장 연임제 전환

기존에 협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각 시도회에서 정회원 1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뽑는 형태였다. 26대 집행부는 협회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선출직 대의원 수를 각 시도회 정회원 2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잔여 인원에 대한 기준 역시 5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했으며, 정회원 수가 적은 시도회가 협회의 의사결정에 더욱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회 최소 대의원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관에 대의원 중 1명은 반드시 중소병원 소속 회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중소병원의 회원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협회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6대 집행부는 기존 중임제로 시행되던 협회장 선거를 연임제로 전환했다.

4 인트라넷을 통한 행정 간소화 및 운영비 선지급 등 시도분과 학회 적극 지원



26대 집행부는 사무국 조직을 확대해 면화하고, 행정 및 법률, 보수교육, 협회비 등 8개 업무에 대한 회선을 상시 운영해 회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그룹웨어를 통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더욱 정착시켜 시도회, 분과학회, 각종 위원회 회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이뤘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대면 회의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화상회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시간과 거리에 제약 받지 않고 안전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출범과 함께 내세웠던 공약사항처럼 26대 집행부는 시도회 및 분과학회 활성화를 위해 보수교육 및 운영비를 요청에 따라 모두 선지급을 진행했다.

일자리 영역 확대 및 중소병원의 회원 복지개선 부문

5 검사 건수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추진

26대 집행부는 주요 공약사항인 검사 건수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추진을 위해 출범한 2018년부터 정책과제 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2018년에는 채혈, 초음파(심장, 뇌혈류, 경동맥 등), 세포병리 분야의 적정인력 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에는 임상병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인력 산정, 건강검진센터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 전문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협회는 특별히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와 '임상병리사 인력 법제화 TF'를 구성해 검사 건수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도입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협회는 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과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수와 관련해 검사실인인증제 검사실운영분야에 시범 항목(검사실운영분야 01.703.070. 검사실의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정수의 임상병리사가 상근하고 있는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우수검사실인인증제를 시행할 시 임상병리사의 인증 심사원 참여를 논의 중에 있다.

2019년 검사실인증 검사실운영 분야 01.703.070 검사실의 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정수의 임상병리사가 상근하고 있는가?

- 점수는 검사실에서 제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호 '검체검사실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에 따른 전년도 4분기동안 직점 또는 수탁분야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 가지점수 총합의 5% 대비 전년도 4분기동안 상근한 임상병리사 수에 따른 점수에 근거하여 자동 배정된다.(단, 검사건수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게 소모되므로 임상병리사수는 1.5배공란 수로 계산한다.)
- 계산점수가 25,000점 미만이면 만점을 부여하고, 25,000점 이상이면 0.5점 을 감점, 35,000점 이상이면 1점 을 감점, 45,000점 이상이면 1.5점 을 감점하고, 55,000점 이상이면 0점 으로 평가한다.
- 2019년, 2020년에는 시범 운영한다.

6 입법 활동 및 유관단체와의 공조를 위한 업권 수호·확장

최근 보건 의료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유전자검사기관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 등 이에 따른 법률도 계속해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26대 집행부는 임상병리사가 이러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 정부기관 및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의학재단 및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임상병리사 필수배치, 검사 건수당 임상병리사 법제화,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에서 15명 미만 문구 식재 등 협회 주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7 중소병원의 회원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및 상조 지원

그동안 중소병원 임상병리사의 임금은 기준이 없이 천차만별이었다. 26대 집행부는 서울시 내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상병리사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대졸 초임 기준 2,800만원으로 재설정했다. 이번 서울시 소재 중소병원을 시작으로 협회는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을 전국 시도회로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26대 집행부는 이와 함께 중소병원(30병상 이하) 회원 직계 준비에 대한 상조 지원, 중소병원의 회원 일반이사 선임 및 종합학술대회 학술장려상 신설, 중소병원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등을 진행했다. 또한 27대 집행부부터는 집행부 내에 중소병원위원을 신설하도록 하여 협회에서 더욱 중소병원의 회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협회 위상제고 부문

8 학제단일화(임상병리학과 평가원), 연수원 설립 기반 구축 및 회원의 협회 당연 가입

26대 집행부는 임상병리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가칭)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설립을 2018년부터 준비했다. 2019년에는 공식 연구과제로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상세 근거와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어서 임상병리교육평가원을 재단법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년 12월 20일 시행되면서 우리 협회는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위상이 격상됐다. 협회는 회원 당연가입 등의 정책을 위해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 정책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9 시도회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사업 진행

26대 집행부는 주요 사회공헌사업으로 2018년, 2020년 강원도 평창 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활동했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코로나19 실무자 정보 공유 및 오픈채팅방 운영 ▲회원 운영 단체 문자 발송 ▲각 지역 주요 병원 격려방문 ▲대구광역시에 마스크 1만장 전달 ▲대구, 경북지역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대구·경북지역 회원 지원물품 전달 ▲코로나19 발생 병원 격려물품 전달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에 마스크를 전달하고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노숙인 무료급식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지난 10월 '동아일보 2020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단체 경영대상' 사회적기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0 취업 기회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청년취업지원팀 신설

26대 집행부는 임상병리사들의 취업을 위해 2019년 제57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주요 대형 병원의 인사 준비를 위한 인사 팁 파일을 만들어 회원 및 임상병리학과 학생과 공유했다. 또한 현직자와 구직자의 취업 준비에 관한 면담을 진행해 이와 같은 자료들을 2020년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58회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넣어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눴다. 2018년부터는 분자유전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관련 분과학회 창립 TF를 신설, 이듬해인 2019년 11번째 분과학회인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를 창립했다. 또한 생리기능검사 업권수호 TF팀을 조직해 보건복지부에서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 채취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 요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26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과 그에 대한 이행사항을 알아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할 제27대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일자리 영역 확대, 최저임금과 같은 사안들은 미래의 임상병리사 후배들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타 직종과의 계속된 갈등 등으로 다가올 2021년도 녹록하지 않겠지만, 모든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힘을 모아 차근차근 답을 찾아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대구시회

대구한의대학교 지역사회공헌센터 및 임상병리학과와 산학협력 MOU 체결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유환림)는 지난 10월 29일 대구시임상병리사회관에서 대구한의대학교 지역사회공헌센터 및 임상병리학과와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열린 지역사회공헌센터와의 협약식에는 유환림 회장을 비롯한 대구시회 관계자들과 함께 정지석 대구한의대학교 지역사회공헌센터 총괄센터장, 박재호 책임교수 등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주민 건강과 관리를 위한 공동 활동 ▲상호간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대학 내 관련학과 및 학생과 연계한 캠퍼스디자인 및 지역사회 자문활동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어서 열린 대구한의대 임상병리학과와의 협약식에는 양은주 대구한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장, 장정현 교수, 강효찬 교수 등 학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했다. 대구시회와 대구한의대 임상병리학과는 산학연계를 통해 ▲임상병리학과 전공교육과정 공동개발 ▲대학 및 산업체, 지역사회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공동 개발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우수한 임상병리사 배출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했다.

유환림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대구시회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회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대민사업 자원봉사 진행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이재진)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성북구 청장실에서 대민사업 자원봉사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엔 이재진 회장, 장인호 중앙회장, 이승로 구청장과 황문선 사업부회장, 차재신 총무이사, 김삼원 중앙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성북구 내 20개 동사무소에서는 소외계층 195명의 자택으로 1인당 김치 10kg, 라면 1박스씩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회는 앞선 11월 28일, 강북만 행정부회장과 황문선 사업부회장, 차재신 총무이사가 성북구 내 소외계층 5명을 찾아가 김치와 라면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12월 4일에는 중앙회와 함께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급식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회는 매년 급식봉사, 소외계층 후원 등을 통해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다. 이재진 회장은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소외계층이 더 많다"며 "이번 후원으로 이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회 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건한)는 지난 11월 13일 협회관 2층 서울시회 강의실에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2020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회원들의 주요 고충과 위원회의 답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건한 공보부회장을 비롯해 김철 공보이사, 김명수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장, 박중오 법제이사, 강복만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행정부회장, 정욱희 위원과 함께 장인호 협회장이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 검사업무에 대한 질문, 병원 내 부당한 대우와 같은 고충에 대해 답변해주고 있다. 2020년 협회 홈페이지 일대일 게시판에는 1,150건, 회원게시판에 194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중 홈페이지 이용이나 면회신고 등 사무국에서 답변한 1,258건의 민원을 제외한 86건의 민원이 위원회에 전달·답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회원들의 주요 고충과 협회의 답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

졌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업무영역에 관한 논란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공격적으로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을 공고히 해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생리기능검사 분야에 후배 임상병리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재 제작,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들에게 받은 고충과 답변을 정리해 차기 위원회에 인계해 더욱 원활하게 회원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20년 회원 주요 고충사항 및 위원회 답변

Q. 방송에서는 간호사 부족하다 방송마다 자원봉사 자원 이야기, 의사들이 자비로 봉사 갔다는 이야기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들의 모습들만 보일 뿐이고 임상병리사들이 지원하거나, 열악한 조건에서 바이러스와 씨름하고 있는 역할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기에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위험 속에서 임상병리사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서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병원성 균에 얼마나 직접적인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진단검사가 능력이 대안하다는 말들은 외신에서도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지. 진료의사들과 간호사들 뉴스에 가려져 소리 없이 묵묵히 진료지원부서로서 임상병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계기라도 될 수 있다면... 기대해 봅니다.(3월 3일, 안OO 회원)

A. 안녕하세요. 현재 협회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병리사가 실무자라는 보도자료를 내 보내고 있으며, 각 방송사에는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일간지 등에 보도해 많은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노력이 알려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3월 11일 위원회 답변)

Q. 울해로 요양병원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검체 채취는 자연스럽게 임상병리사에게 넘기더라고요. 직원, 환자들 전수조사 검체 채취에도 참여했고, 신규 환자의 검체 채취도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호구나 별도의 격리 시설도 없이 다인실에 있는 신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걸 요구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부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네요. 억울한 마음은 꼭 풀고 싶습니다. 협회에서 도와주세요. (6월 9일, 김OO 회원)

A. 안녕하세요 회원님. 회원님의 간절한 글 여러 번에 걸쳐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면서 안타까운 감정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회원님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설과 보호구도 없이 회원님에게 검체 채취를 강요한 요양병원의 행태는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처사이며, 환자 및 직원의 안전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안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 및 회원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병원에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Q. 폐기물 검사나 심전도 뇌파검사 심초음파 등 생리기능검사 부서에 임상병리사가 아닌 직종에서 검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과 생리기능검사 업무 영역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올립니다.(10월 28일, 이OO 회원)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 폐기물검사 등 생리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10월 28일, 위원회 답변)

Q. 임상병리사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전에 있던 간호과장이 협회에 전화를 해서 임상병리사 업무에 대해 물어봤다면서 모든 검체 채취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blood culture, urine culture 시 검체 채취도 임상병리사 업무라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urine culture 검체 채취시 벨라톤을 사용할 경우도 임상병리사가 해야 하는가요?(5월 8일, 김OO 회원)

A. 임상병리사 검체 채취의 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혈액 및 가검물의 채취는 임상병리사의 당연하고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혈액배양을 위한 혈액채취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검체 채취 시기의 적정성을 위해 의사 또는 의사의 진료 및 검사보조를 하는 간호사가 채취하여 검사실로 의뢰하고 있으며, 소변 배양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상병리사, 의사, 간호사 등의 안내에 따라 환자가 직접 멸균적으로 검체를 받고 의료기관 직원이 검사실로 검체를 운송하여 배양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체 채취가 임상병리사의 당연하고 일반적인 업무 범위이며, 혈액배양과 소변배양을 위한 검체 채취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임상병리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 요도(尿道)를 통해 방광(膀胱) 내에 삽입하여, 도뇨(導尿), 방광 내부의 세정(洗淨), 약액(藥液)의 주입 등에 주로 사용되는 벨라톤의 삽입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의료자원정책과-1769(2020.02.14))에 근거하여 인체 표피의 검사를 채취, 자궁 내막의검사를 채취 등과 같이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5월 8일, 위원회 답변)

Q. 한국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임상병리사가 일본의 임상검사기사로 면허를 인증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면허가 인정된다면, 일본의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지, 경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일본의 해외취업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월 4일, 오OO 회원)

A. 한국의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가지고 일본에서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임상검사기사 수험자격은 '외국에서 동등의 관련학교 및 양성소 등을 졸업했거나 외국에서 임상검사기사 상당의 면허를 취득한 자 중, 후생노동대신 제1호에 기재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임상검사기사 수험자격은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 당국에서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학교의 커리큘럼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1월 6일, 위원회 답변)

Q. 울해로 요양병원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검체 채취는 자연스럽게 임상병리사에게 넘기더라고요. 직원, 환자들 전수조사 검체 채취에도 참여했고, 신규 환자의 검체 채취도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호구나 별도의 격리 시설도 없이 다인실에 있는 신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걸 요구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부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네요. 억울한 마음은 꼭 풀고 싶습니다. 협회에서 도와주세요. (6월 9일, 김OO 회원)

A. 안녕하세요 회원님. 회원님의 간절한 글 여러 번에 걸쳐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면서 안타까운 감정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회원님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설과 보호구도 없이 회원님에게 검체 채취를 강요한 요양병원의 행태는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처사이며, 환자 및 직원의 안전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안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 및 회원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병원에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요양병원에서 많은 회원들이 코로나19 검체 채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다른 병원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10일 위원회 답변)

Q. 임상병리사의 업무라며 검체 채취에 관한 모든 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 혈액이나 소변 채취는 당연한 업무이지만 PUS 등 수송배지에 넣어야 하는 검사도 검사의 일부이니 임상병리사의 업무라고 합니다. PUS 검사는 의사의 업무 아닌가요? (7월 18일, 최OO 회원)

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PUS와 같은 검사는 "표피의 검사를 채취"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검체 채취 업무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면봉(swab, brush)으로 비강, 인두, 구강의 정액을 채취하는 건 임상병리사도 가능하지만, 자궁내막, 표피의 검사를 채취는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0일 위원회 답변)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심초음파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우리 임상병리사도 즉시 RDCS, SPI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8월 31일, 박OO 회원)

A. 회원님의 문의를 접수한 후 임상생리학검사학회에서 대략 20여개 병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 회원은 170명 중 70여명이 RDCS, SPI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위 자격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격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의사와의 소통에 훨씬 유리하다고 하며, 간호사들은 대부분 취득한다고 합니다. (9월 15일 위원회 답변)

World's BEST

‘전 세계 점유율 압도적 1위’의 믿을 수 있는 염색성

4분 30초의 초고속 염색 /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인텔리전트 클리닝 / 자동 시약량 모니터링 / Cytoentrifuge 기능 / 다양한 염색성 저장 및 편리한 사용 / 시간당 400매의 고속처리 / 폐수 용기 모니터링 / 염색데이터 보호 기능 / 추적관리기능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그램염색기 ■ 결핵염색기 ■ 혈액염색기 ■ 세포염색기(New)

Aerospray® Slide Stainer / Cytoentrifuge

수입원: (주)브라이텍
Tel: 02-948-8246 Fax: 02-948-7559 Email: cs.brightek@gmail.com Web: www.brightek.co.kr

협력사
(주)성현메디텍 / 대왕약품 / 동방메디텍 / (주)동성메디칼 / 프라임메디텍 / 길랩 / (주)하에스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 필수과목 이수 관련 공지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는 면허신고 시 필수과목을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면제 및 비대상·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필수과목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으로 필수과목이 이수 인정되는 교육은 아래와 같다.

1) 2019년도 필수과목 이수교육

시도회	교육명	교육일자	필수과목명
서울시회	[서울시회]2019년 장원의료재단 유 특의원 특별분회 보수교육	2019.09.22	성폭력,성희롱 예방
	[서울시회]2019년 서울시회 제1회 학술제	2019.10.12	성폭력,성희롱 예방
	[서울시회]2019년 세브란스병원 제2차 특별분회 보수교육	2019.11.25	성폭력,성희롱 예방
광주시회	[광주시회]2019년 제2차 보수교육	2019.10.05	성폭력,성희롱 예방
경기도회	[경기도회]2019년 제2차 보수교육	2019.06.15	성폭력,성희롱 예방
강원도회	[강원도회]2019년 제1차 보수교육	2019.04.14	성폭력,성희롱 예방
충남도회	[충남도회]2019년 제1차 보수교육	2019.06.15	성폭력,성희롱 예방
전북도회	[전북도회]2019년 제1차 보수교육	2019.04.13	자살 예방
	[전북도회]2019년 제2차 보수교육	2019.11.02	성폭력,성희롱 예방
제주도회	[제주도회]2019년 제1차 보수교육	2019.06.22	성폭력,성희롱 예방
중앙회	[중앙회]2019년 제57회 종합학술대회	2019.08.30-31	성폭력,성희롱 예방
	[전남도회]2019년 제1차 보수교육	2019.10.19	성폭력,성희롱 예방
경남도회	[경남도회]2019년 제1차 보수교육	2019.04.27	성폭력,성희롱 예방
대구시회	[대구시회]2019년 제2차 보수교육	2019.09.28.	성폭력,성희롱 예방

2) 2020년도 필수과목 이수교육

- 제58회 종합학술대회
 - 시도회(1,2,3차) 및 분과학회 웹세미나 보수교육
 - * 단, [임상병리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On-line 보수교육 (2020.11.07) 제외
- 면허신고는 전년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위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필수과목 이수 인정된다. 위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주하는 질문

Q. 매년 필수과목을 2시간씩 이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면허신고 기간인 3년 동안 2시간을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분들은 2018년, 2019년, 2020년 총 3년 동안의 보수교육 중 필수교육 2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근무처에서 실시하는 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으로 대체가 되나요?
A. 안됩니다. 근무처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무교육입니다.
 임상병리사 면허신고에 위한 필수교육은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실시기관과 교육과정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만 인정됩니다.

Q. 이미 보수교육을 전부 이수했는데, 필수과목을 위해 추가로 보수교육을 더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필수교육만 이수할 수는 없나요?
A. 협회에서 20.12~21.1 중으로 필수교육만 포함된 무료·유료 온라인 교육(1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료 필수과목: 이미 보수교육 시간을 완료한 분이 추가로 필수교육 이수만을 원할 때.
 유료 필수과목: 보수교육 시간(점수)과 필수과목 시간 둘 다 이수를 원할 때.
 *8시간(=평점)기준으로 보수교육 6시간 + 필수과목 2시간
 *코로나19로 유료 필수과목 개설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무료 필수과목은 예정대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Q. 필수교육을 몇 시간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2021년도 면허신고부터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에서 필수과목 이수 시간을 표기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시도회·분과학회 보수교육 일정

시도회 3차 보수교육: 12월 12일 토요일(서울시회, 부산시회, 경기도회, 전남도회, 경남도회 진행 예정)

분과학회 보수교육

분과학회	보수교육일	교육시간	이수시간	필수과목
조직세포검사학회	12월 5일	13:00 ~ 17: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웹세미나 보수교육 Q&A

- Q.** 웹세미나 보수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협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 웹세미나 보수교육은 모바일 기기로 시청이 가능한가요?
A. 웹세미나 보수교육은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 Q.** 웹세미나 보수교육 출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수교육을 시청할 수 있는 URL 주소를 등록된 회원님들의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신청한 시간만큼 웹세미나 보수교육을 시청하면 됩니다.
- Q.** 하루 보수교육으로 4시간을 이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웹세미나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프로그램 시간표를 확인한 후 교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Q.** 웹세미나 보수교육 4평점 이수 시 품질인증 대상교육 신청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0년도 품질인증 교육반영은 웹세미나 보수교육을 포함한 온라인 보수교육, 종합학술대회 이수 대상자 명단을 대한임상병리사정도관리협회에 일괄 신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신속 항원검사 도입되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도입에 보건의료계 찬반 논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1월 26일 500명대에 들어서면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RT-PCR 등 분자진단 방식의 검사 외에도 짧은 시간 안에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과 11일 국내 바이오업체인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항원진단키트와 항체진단키트 2종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원진단키트는 의료인 또는 검사 전문가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존 유전자 진단 방식에 비해 정확도는 부족하지만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낮은 정확도를 문제삼아 신속진단키트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차 유행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자 '신속성'을 이유로 신속진단키트를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검사는 현실적인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다가, 우선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종사자 전수검사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시설 종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보조적으로 도입해 자주 검사함으로써 조기에 양성자를 찾는데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국내 PCR 진단 역량은 하루 9만건 정도인데, 실제로 진단의뢰되는 건수는 3~5만건에 불과하다"며 "미국처럼 분자진단 역량이 모자랄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자진단 역량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우선 신속항원검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후 도입 시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확진자 규모에 따라 추가 사용처 및 승인의 가능성도 있다. 많은 임상병리사 회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지쳐 있는 가운데 신속항원검사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cellence in Molecular Diagnostics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코젠바이오텍

국내 최초 개발 및 공급

- 2020년 코로나19 · 독감 동시진단 (체외진단의료기기 1호)
- 2020년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1호)
- 2015년 메르스
- 2009년 신종플루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주)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주)코젠바이오텍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C동 1101호(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전화 : 02-2026-2150 | 팩스 : 02-2026-2155
 kogene@kogene.co.kr | www.kogene.co.kr



박성준 의원, 군 의료기사 응급처치 허용 법안 발의



전시와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와 의무병의 응급처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 국방위원회)은 11월 24일 "전시와 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다.

박성준 의원은 "전시와 사변 상황이나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임상병리사를 비롯해 의무병,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 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씨젠의료재단, 「Handbook of Laboratory & Diagnostic tests」 제 2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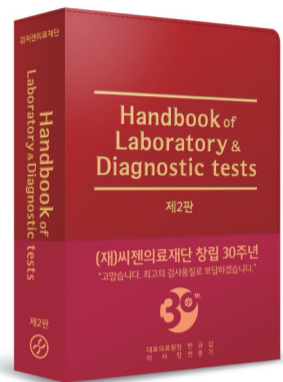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진단검사의학 관련 정보를 모은 「Handbook of Laboratory & Diagnostic tests」를 개정해 발간했다.

진단검사의학 핸드북의 집필에는 한규섭 대표의료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검사뿐 아니라, 국외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는 항목까지 수록했다. 또한 검사 항목별 검사 목적 및 임상적 의의, 측정치 증감에 따른 관련 질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진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한규섭 대표의료원장은 서문을 통해 "책자의 모든 내용은 수많은 토의와 검토의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 한 끝에 완성되었다"며 "재단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진단검사의학 핸드북이 환자 진료의 최전방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Handbook of Laboratory & Diagnostic tests」, 제 2판은 씨젠의료재단 홈페이지의 학술제작물 메뉴에서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 병·의원, 여전히 근로기준법 위반 많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들도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중소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불안한 근무환경 속에 강제 휴가,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 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148명, 간호사 779명, 간호조무사 172명이었으며 기타 여러 직종을 합쳐 총 1372명이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 41개 문항으로 나눠 코로나19 대응행 속 노동조건을 살필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불이익에 관한 질문에서 '매우 안정'과 '안정'을 합해 21.1%에 불과했으나 '불안'과 '매우 불안'은 47.9%로 두 배가 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입원병실이 없는 의원과 치과 병·의원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병원과 비슷하게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이익 경험 여부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중복 응답 가능) '연차 소진 강요'(23%), '감염 예방 미조치 및 방역용품 부족 지급'(19%), '무급휴업/휴직'(13%), '무급휴가 노동시간 변경 등 불이익 동의서 강요'(11%), '임금삭감'(11%)의 순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무급휴가, 무급휴업, 연차소진 등 휴가관련된 불이익은 약 57%로 절반 이상이 겪은 문제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임금삭감, 임금 체불, 휴업수당 등 임금 관련은 23%, 감염 관련은 19%, 해고는 2% 등으로 불이익이 나타났다. 환자 감소 등을 이유로 강제 휴가 부여로 인한 임금 감소 불이익을 포함하여 결론적으로 임금의 저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간의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론, 환자가 없다고 눈치를 주는 등의 사항도 있었다.

그 외에도 근무 인원을 줄이거나 근무 조건을 변경하고, 동료 직원들의 사직을 권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코로나19로 환자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 등에 대한 내용도 많았으며, 선별진료소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근 후 동선 기입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도 더러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의 출발점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고, 그를 기반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어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0%에 달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63%가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일부 병·의원이나 실제 노동자에게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병원 병실이 없는 의원 응답자 가운데 야간근로는 22.9%, 토요일 진료는 57.6%,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 진료는 20.4%가 실시한다고 답했으나 이에 따른 시간외 또는 휴일 근무수당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유효답변의 36.6%, 33.8%, 46.1%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최소 1/3, 많게는 거의 절반이 공짜노동을 하는 셈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야간진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비율이 더 높고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다는 비율도 높았다.



휴게시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0%가 넘었다. 임금도 정해진 규칙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유효답변의 25.8%에 이르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무려 46.8%에 이르렀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저임금 층에서 눈에 띄게 높았다. 임금총액이 2000만원 이하의 응답자 가운데 41%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3400만원 이상 응답자보다 무려 2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현장에서는 저임금 층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여 임금을 보전하고 연말정산의 환급금도 귀속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환경에 대한 응답도 주목됐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고용불안은 56%, 임금 불만족은 70%, 장시간 노동은 66%, 업무 피로도는 42%, 이직 고려는 55%, 비인간적 대우는 43%가 호소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통받고 있는 작은 병·의원 노동조건 개선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다른 아닌 작은 병·의원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로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의 원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기는 쉽지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가입을 통한 조합원 확보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 여론화하는 '열린지부'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병·의원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화와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20년 12월 22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54호 당첨자]

● **최소영 회원:** '나는 오늘도 보건소로 출근합니다' 책을 쓴 김봉재 회원 인터뷰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전에도 병리협보에서 책을 쓴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는 몇 번 봤었는데, 이렇게 우리 임상병리사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검사실에서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이 쓸쓸했던 적이 많았어요. 김봉재 회원님의 책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이 보다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람 회원:** 임상병리사협회가 동아일보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많은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예전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 매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창립 30주년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전문의, 석·박사, 임상병리사 등
 9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진단의학검사·분자진단검사·병리검사·연구용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4,000여가지의 검사를 통해 임상진료 및 연구를 위한 검사서비스를
 전국 병·의원,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검사센터



대구경북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I)



씨젠의료재단 본원



씨젠의료재단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I)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medical.com